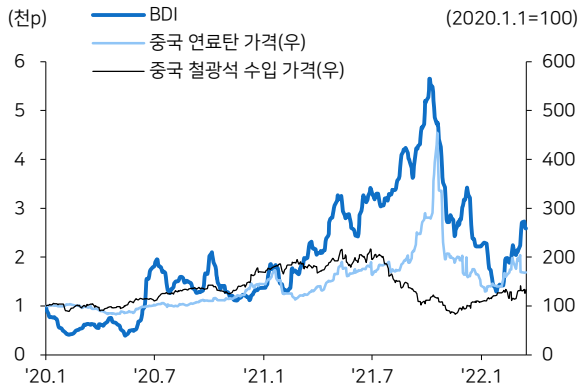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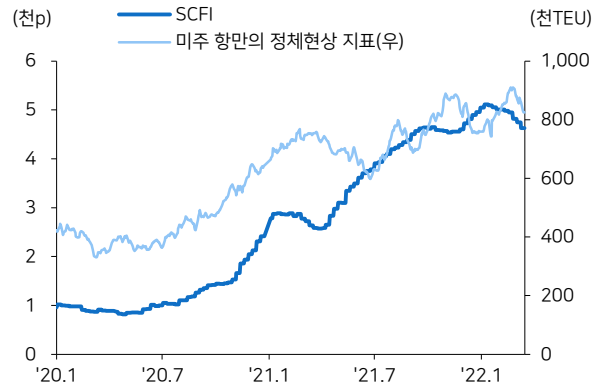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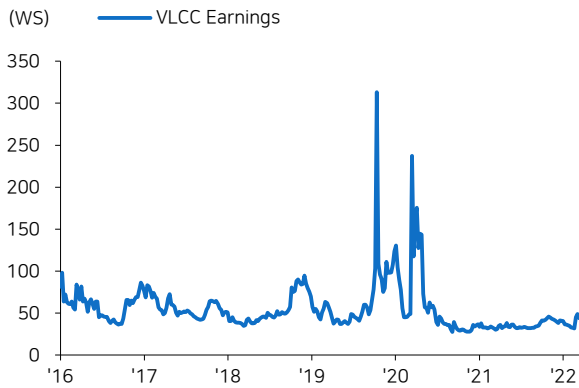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88.0p(-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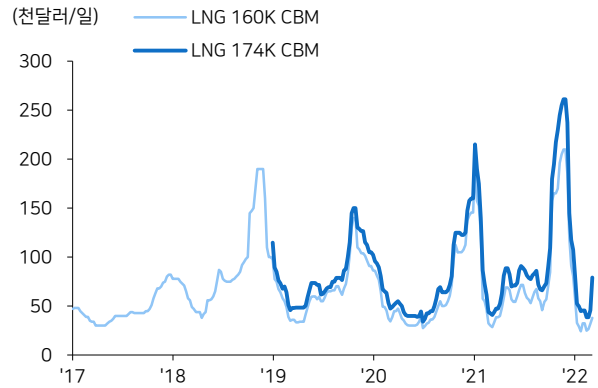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625.1(-121.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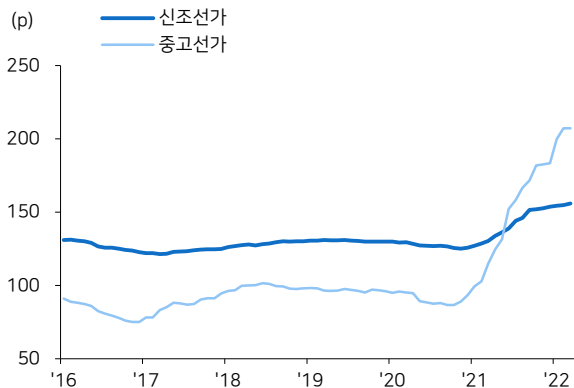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3.9(-4.9p WoW)



LNG Spot 운임 38.0p(+6.0p WoW)
79.3p(+33.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5.8p(+1.4p WoW)
207.6p(+0.4p WoW)



항공시장 지표 310.1p(+5.8p DoD)
99.4p(+0.8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다음달 국제선 항공료 또 비싸진다...유류할증료 50% 이상 올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4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가격도 인상된다고 보도됨. 유류할증료가 3월대비 대한항공 최대 53.3%, 아시아나항공은 40% 가량 증가할 예정임.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월 16일-3월 15일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산출해 반영하는 식으로 결정된다고 알려짐.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두 항공사 모두 9,900원으로 정함. (에어진)

티웨이항공 "2027년까지 매출 3조원 달성...북미·유럽도 운항"

티웨이항공이 2027년까지 유럽·북미로 운항노선을 확대해 매출 3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보도됨. 대형기 20대와 중소형기 30대를 운영하고, 파리·로마·이스탄불·런던 등 장거리 노선운항도 할 것으로 발표함. 지난 2월 24일 도입한 대형기 A330-300은 3월말부터 김포-제주노선에 투입할 계획임. 오는 5월 싱가포르, 7월 크로아티아 운항, 겨울에는 호주 운항 예정임. 2022년 상반기 A330-300 3대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총 50대를 운영할 계획임. (에어진)

"러시아産 원유 생산 30% 급감 전망...최악 공급위기 우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4월부터 러시아의 원유생산이 30% 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됨. 하루 300만배럴에 해당하는 규모임. 에너지 시장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공급위기에 직면했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증산이 없다면 에너지 공급 쇼크가 심각해질 것으로 언급함. (조선Biz)

미국, 유럽행 LNG 추가 수출 승인

미국정부가 자국 LNG생산업체 셔니어에너지의 추가 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됨. 하루 약 2,039만CBM의 LNG를 유럽 전체를 포함해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어떤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음. 미국 에너지부는 현재 미국 내에 가동되는 모든 LNG수출 프로젝트가 최대 생산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고 설명함. 미국은 연말까지 수출을 현 수준보다 20% 늘릴 것으로 예상됨. 한편, 러시아는 기존에 유럽이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의 30-40%를 제공해왔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US bans and self-sanctioning sees Russian ships sailing to parts 'unknown'

러시아 원유를 실은 탱커들이 목적지를 잃었다고 보도됨. Windward에 따르면 유럽행 탱커가 급감하며 '목적지 미상'인 선박 수가 25척을 넘어섰다고 보도됨. 이는 460만배럴 가량의 러시아산 원유가 바다를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Windward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함. (Tradewinds)

Ukraine war hits container freight rates, but could Covid-19 outbreaks revive them?

러시아 제재강화 및 중국 COVID-19 확산으로 아시아-북유럽 항로 Spot 운임이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FBX에 따르면 3월 17일 기준 컨테이너 운임은 560달러 하락한 12,564달러/FEU로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러시아 침공 이후 Spot 운임은 12% 하락했는데, 다수의 항구에서 임시결항(blank sailing) 및 결항 등 운항차질이 생겼다고 알려짐. (Tradewinds)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